

2013. 8. 20 | 제 284 호 |

경로당의 진화,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

- 김종민(원장)
- 김승희(연구위원)

강원발전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RIG

2013. 8. 20 | 제 284 호 |

경로당의 진화,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

- 김종민(원장)
- 김승희(연구위원)

경로당은 고려시대의 사랑방에서 유래하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적 공간이다. 농경사회 시절 부잣집들은 바깥채 큰 방인 사랑방을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했고, 사랑방에서는 문중 일에서 농사 그리고 신변잡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등 다양한 생활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사랑방은 일제강점기의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유용한 기능 때문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정자 또는 무허가 판잣집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정보소통의 필요가 급증하면서 경로당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1970년대 들어 도시구획정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경로당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1997년 개정 주택개발법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경로당은 급증했다.

2013년 현재 전국에는 경로당이 6만 2천 442개소(강원도 2천 949개소)가 있으며, 노인 100명당 1개 켤(강원도 1.22개)로 설치되어 있다. 정부의 예산투입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에 2천 500억 원(강원도 '13년 현재 134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명실공히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시니어 액티브에게 경로당은 늙어서 가기 싫은 곳, 화투와 바둑과 음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채 시대의 발전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노인의 34% 그리고 강원도 노인의 47.6%가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들이 단순히 늙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집단지(集團知)를 생산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재투자하는 사회경제적 복합기능이 요구되는 때이다.

경로당은 일상생활단위인 리(里)지역마다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인 환경조성은 어느 정도 정책제도에 올랐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고령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일방적 지원형태가 아닌, 노인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령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일 것이다. 강원도가 겪는 미증유의 고령사회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경로당의 새로운 개념인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SRC, Senior Re-start Center)”를 제안하며,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해보자. 예전의 사랑방 기능을 융복합화하고, 고령자들이 겪게 될 신체적·사회적 변화의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은 재원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I. 경로당 개념과 현황

■ 경로당 설치 목적과 기능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 설치 목적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 장으로서의 역할
 -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역노인에게 휴식, 여가 등을 제공하는 1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소’로서 활용
-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는 달리, 경로당의 경우 이용하는 지역노인 스스로가 운영주체이자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용과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차이 발생

〈주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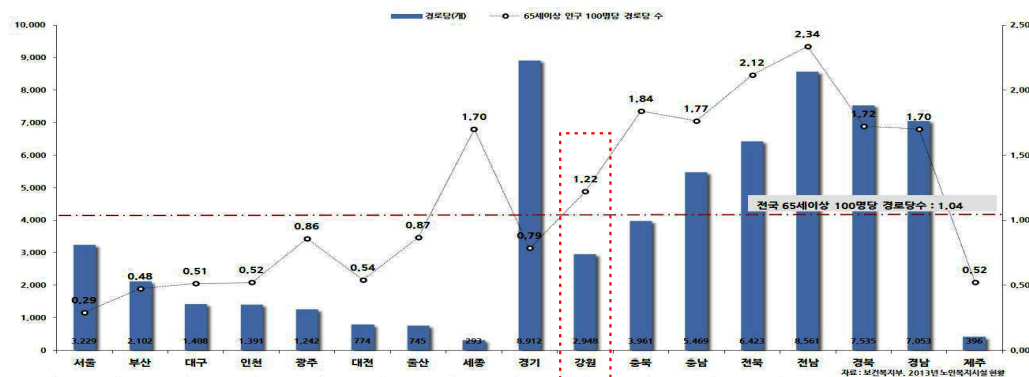
구분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설치 목적	지역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을 위한 장소 제공(공동작업장 운영 포함)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종합 관련 서비스 직접 제공(일자리 정보 제공 포함)
운영 주체	이용노인	별도 법인에 위탁 운영
설치 기준	면적	연면적 500㎡ 이상
	시설	사무실, 식당, 조리실,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기타	-
설치 방법	해당 시군에 신고	해당 시군에 신고

〈주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비교〉

구분	강원도 내 시설 수	주요 기능과 역할					
		재가 복지	정보 제공	소득 보장	건강 유지	취미 생활	친목 도모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직접 제공					
노인교실	19개소	관련 학습 프로그램 제공					
경로당	2,948개소	자율적으로 제공/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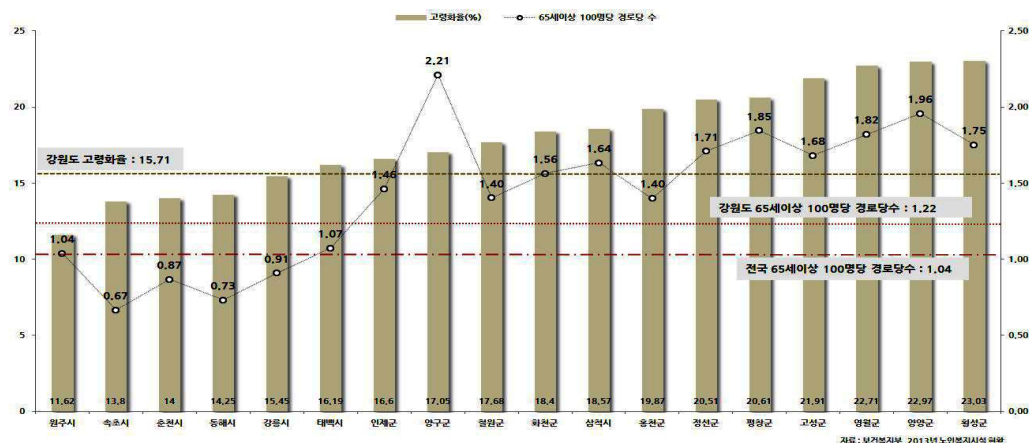
■ 도내 경로당 설치 현황

- '12년 현재 전국 평균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경로당 수는 1.04개 (총 62,442개소)
- 강원도의 경우 노인인구 100명당 1.22개(총 2,949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경로당 수 : 전국 vs 강원도〉

-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령화율에 비례하여 초고령화 지역일수록 경로당 수가 많고, 최소행정단위인 리단위에 1개 이상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경로당 수 : 전국 vs 강원도〉

장기적으로 경로당의 양적 증가보다는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

■ 도내 경로당 실태 : 고령화 지역 춘천(고령화율 14%) vs 초고령화 지역 횡성(고령화율 23.3%)

- 경로당 설치 비율은 초고령화 지역(횡성)일수록 높은 상태이며 현실적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소행정단위인 리단위를 기초단위로 하여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은 상태(→ 장기적으로 양적 증가보다는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 경로당 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하여 외관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을 갖고 있는 상태이나, 노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안전안심 환경조성이 필요

【춘천시 경로당 현황 : 332개소(2012년 12월 기준) / 65세 노인인구 100명당 0.8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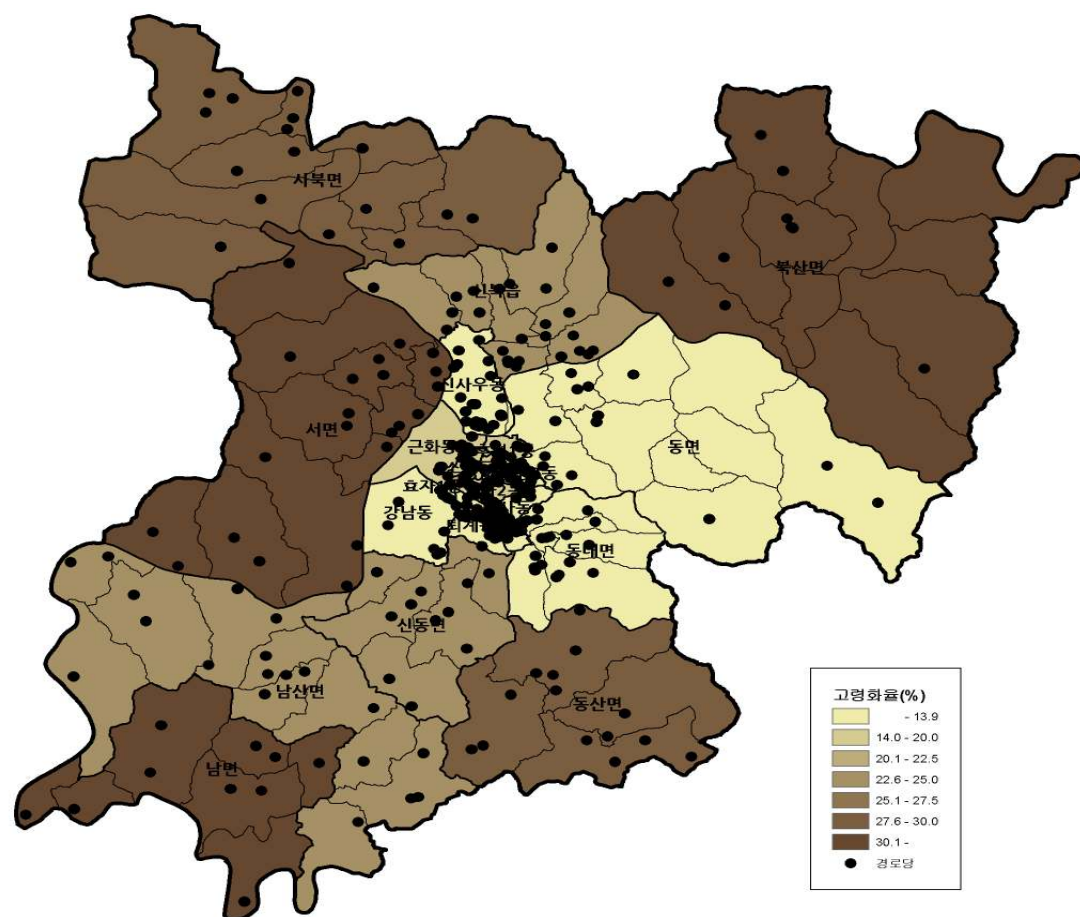


〈농촌지역 경로당 외부〉 〈농촌지역 경로당 내부〉 〈내부: 화장실〉 〈내부: 취사시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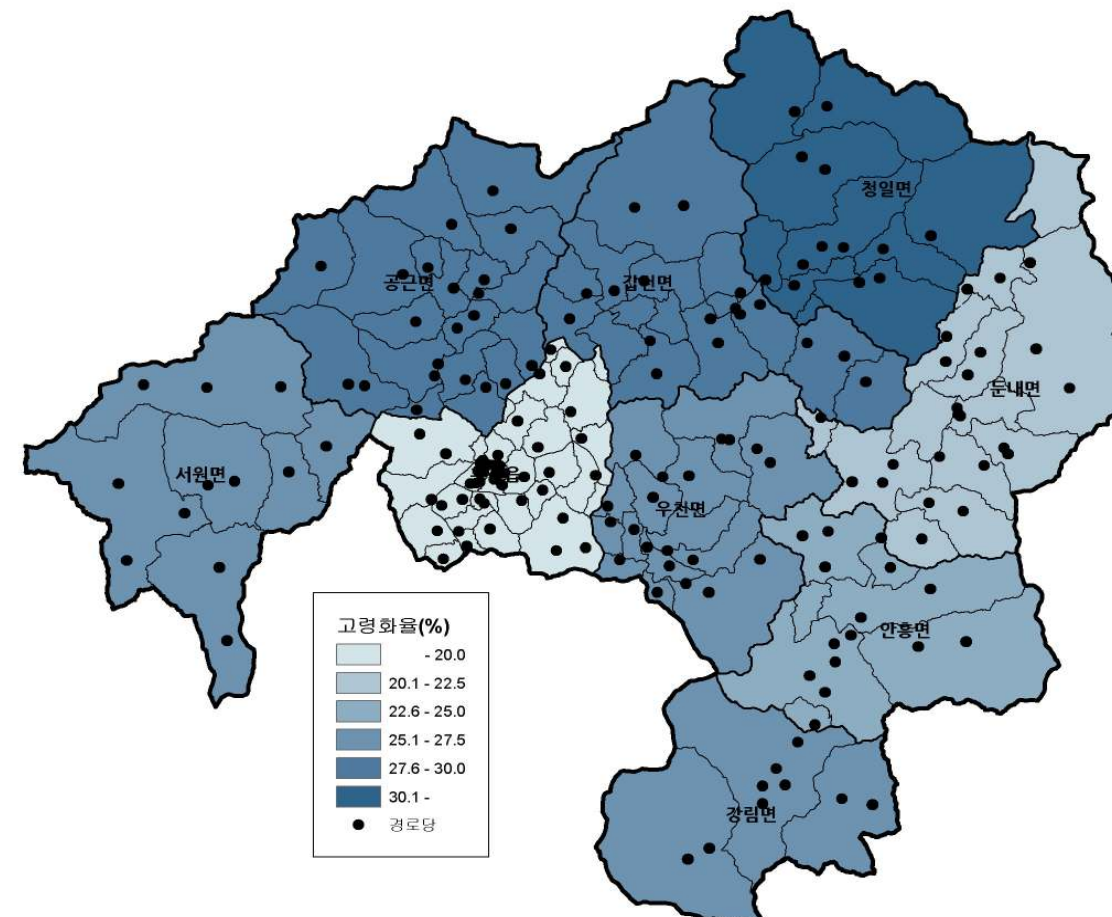
【횡성군 경로당 현황 : 180개소(2012년 12월 기준) / 65세 노인인구 100명당 1.75개소】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 〈아파트 내 경로당〉 〈단독시설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진행〉



〈춘천시 읍면동별 고령화율 및 경로당 분포도〉



〈횡성군 읍면동별 고령화율 및 경로당 분포도〉

II. 강원도 경로당 관련 제문제

■ 운영비와 난방비 중심의 예산지원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부담

- 도내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연간 456만 원 지원, 총 134억 원이 경로당에 직접 지원
 - 경로당으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의 세부 항목은 운영비 + 난방비 + 냉방비 + 양곡비로 1개소당 평균 연간 456만 원 지원
 - 도내 2,94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총 134억 원의 예산이 지원
 - 지방이양사업인 운영비 지원의 경우 공과금 및 수수료, 시설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기타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

〈도내 경로당 개소당 지원항목 및 지원액〉

구 분	개소당 지원액	내 용	비 고
운영비	263만 원 내외	공과금, 수용비 등	도비 / 시·군비
난방비	150만 원	난방비	국비 / 특별교부세 / 도비 / 시·군비
냉방비	10만 원	냉방비	
양곡비	33만 원 내외	*읍면/동 차등지급	국비 / 도비 / 시·군비
1개소당 평균 연간 456만 원 지원			

- 이외에도 경로당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간접적인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등 주로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2013년도 강원도 경로당 활성화 지원정책〉

구 분	내 용	예 산
노후·협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15개소	16억 40백만 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1개소	2억 81백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18명	4억 3백만 원
총 계		23억 24백만 원

☞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의 도모 필요

☞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의 필요성

■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이용계층의 편중

○ 도내 노인들의 경우 경로당에 대해 ‘접근성 편의’의 높은 만족도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도내의 경우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 지속적 이용의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 경로당 이용률 → 전국 34.1% < 강원도 47.6%

: 향후 경로당 지속적 이용의사 → 전국 47.8% < 강원도 60.0%

- 도내 경로당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친목도모’이며, 만족 이유는 ‘비슷한 노인과의 만남’으로 나타남. 비슷한 연령과 상황(농어촌, 무학, 독거 등)인 노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 충족
- 경로당 접근성에 대하여 도내 노인들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실정

: ‘거리교통 편리’ 만족도가 전국 9.0%에 비해 강원도는 18.2%로 높은 실정

○ 반면 경로당 미이용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이용 노인 연령이 맞지 않음’과 ‘몸이 불편해서’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연령층과 신체불편 노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조사결과 도내는 주로 경로당 이용 연령이 75세 이후의 후기 노인 중심으로, 65세~75세 미만의 전기 노인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
- 또한 도내 경로당 미이용 이유로는 ‘시설미비’와 ‘몸이 불편해서’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몸이 불편한 노인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구조 개선과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위생·안전문제 해결 등이 필요한 실정

■ 화재 위험과 식품관리 등의 안전관리에의 잠재적 위험

○ 한국생활안전연합조사 결과(2004, 경로당 안전실태조사), 경로당의 평균 안전점수가 54.8에 불과

- 화장실·욕실 이용부문에서 가장 낮은 37.2점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조사 대상 경로당 화장실의 90.7%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넘어짐, 미끄럼’과 같은 사고에 쉽게 노출
-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11.5%로 매우 저조한 상태로, 화재 시 소화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72.3%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용법을 안다고 응답한 노인이 31.9%에 불과
- 도내 경로당의 98%가 가스 및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67%는 주 5회 이상 취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조사, 2012)
- 반면 관리소홀로 인한 폐품적치로 인한 화재 위험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위생·안전 문제 해결 등이 필요

■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경로당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 인식전환을 위한 계기 필요

- ‘늙어도 경로당에 안간다’라는 인식
 - :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층은 나이가 들어도 경로당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보건사회연구원, 2013)
 - : 전체 노인의 33.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도시지역 19.5%에 반해 농촌 지역은 64.2%가 이용
 - : 화투, 음주 등 친목도모에 한정된 ‘단순공간’으로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는 ’80년대부터 오래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상태
- 총선 및 지선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 소통 부재에 용서를 비는 어르신들의 상징적 장소로서의 이미지
 - : 선심성 정치공약이나 지역이라는 공간 중심적 사고로 인해, 경로당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문제 제기
 - : ‘선거관리 위원회’의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활동의 우선 대상지로 지정

Ⅲ. 국내외 경로당 등 지역사회단위 노인여가문화시설 사례

■ 국내 사례

용인시 기흥구의 D 아파트 경로당	- D 아파트는 830여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2003년에 경로당 개설 -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노인들 간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용이 매우 저조 - 그러나, 2010년부터 컴퓨터·스마트폰 교실, 노래교실,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 노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성남시의 ‘3대가 어울리는 글방’	- 성남시 분당구 3개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기능 문화공간인 ‘3대가 어울리는 글방’을 설치·운영 - 독서교실을 비롯한 한문교실, 바둑교실, 장기교실, 한글교실 운영 및 각종 편의시설과 도서 구비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의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 - 글방운영·관리 인력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다기능 문화활동 공간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방침
충청남도 ‘행복경로당’ 조성사업	- 행복경로당은 복지관처럼 각종 프로그램과 무료 식당 등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충청남도가 지난 2011년 57곳, 2012년 39곳 등 현재 96곳을 설치·운영 - 발마사지와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8종 1,467회의 프로그램 진행, 총 2만 8,679명이 참여 - 2013년 행복경로당 이용 노인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 - 2013년 4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무료 경로식당 8억 6,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8억 3,400만 원 등 총 3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 향후 2014년 36개 설치를 통해 총 175개 행복경로당을 설치운영 계획

■ 일본의 고령자 편의점 바·지·루(ば・じ・る,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신바람’의 약자)

- 북해도 비호로정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심시가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2001년 8월 ‘고령자 편의점 바·지·루’ 설립, 약 6개월간 시범운영 이후 2002년 3월부터 독자적으로 운영
- 상점가로 내에 고령자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여러 세대가 모여 교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생성의 공간으로서 기능, 음식제공 및 상품판매, 건강 상담, 강습회 개최 등 지역의 커뮤니티 생성을 지원, 지역 밀착형 소통의 광장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교류와 자기표현, 사회참여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



〈고령자 편의점 바·지·루 입구〉



〈바·지·루에서의 식사〉



〈바·지·루에서 이벤트 활동〉

■ 프랑스 3세대 노인 클럽 (the Third age clubs)

- 1975년 제7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의 중점 목표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에 의한 노인 보호 원칙(community care)의 일환으로 개발돼 현재 지자체 단위로 운영
- 2007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여 개 가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75만 명이 참여(www.aines-ruraux.com)
 - 노인클럽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여행과 같은 친교활동 및 건강프로그램 등과 전문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프랑스 노인들의 80% 정도가 일상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클럽활동에 참여,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빈도가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인 32%보다 높은 50%에 육박(INSEE, 2004)

■ 미국 시니어 센터(Senio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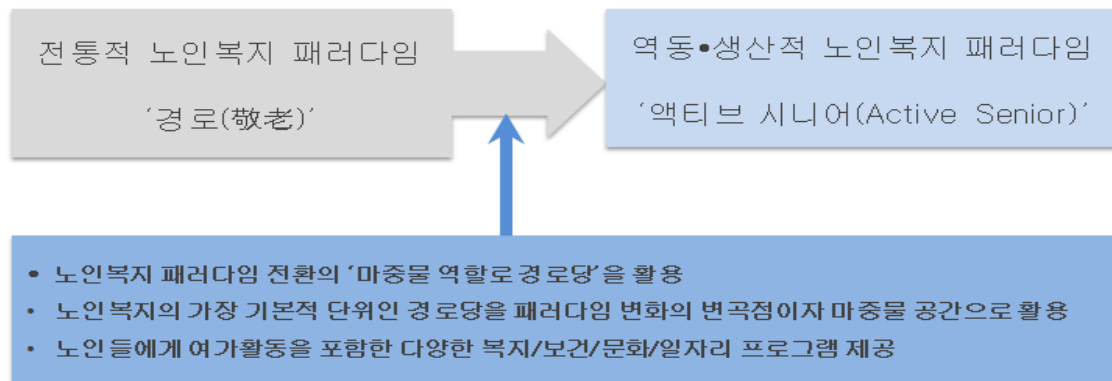
- 1800년대 ‘노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1940년대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
 - 1970년대 들어서 정부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기준, 미국 전역에 약 1만 6천 개, 1천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센터별로 다르게 운영
 - 다목적 센터(Multi-purpose center) : 교육, 운동, 레크리에이션, 건강프로그램, 식사제공, 건강검진, 교통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세대간 센터(Intergenerational center) :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교육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
 - 특별 센터(Specialized center)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 예를 들어 다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건강검진과 질병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거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정기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운영

IV. 경로당의 진화 :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Senior Re-start Center)

point 1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마중물’로서의 경로당

- 단순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 복지패러다임을 생산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경로당을 업그레이드
 -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은 노인을 단순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경로(敬老)’에 초점을 두어 추진
 -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생산주체로서 인식하고 능동적인 복지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 필요
 -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보건/문화/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기본적인 단위인 경로당을 노인복지패러다임 변화의 변곡점이자 마중물 공간으로 활용



- 경로당 명칭 개선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집단지(集團知)를 창출하는 시니어 집단화 도모
 - 가칭)시니어 리스타트 센터로 명명하고, 산재되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
 - 여가/문화, 주간보호, 일자리, 평생교육, 건강관리, 각종 사회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제공

point 2

시니어 리스타트 센터(Senior Re-start Center)의 운영

- 규모는 작아도 없는 것이 없는 ‘구멍가게’ 형태의 촘촘한 프로그램 설계와 필요 서비스를 계통화, 집적화하여 간접비용을 최소화하는 운영
 -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
 - 이를 기회요인으로 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 지역 자원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역수요 응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부여

시니어리스타트 센터 : SRC (Senior Re-Start Center)			지역사회와의 연계 고령자 인력 활용 및 마을 커뮤니티 형성		연령별 중점 제공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세부내용			65 ~ 70세	70 ~ 75세	75세 이상
운영 위원회 자체회의	- 회의 안전체크	- 지역사회기관 연계 및 감사초빙 논의 - 회원 권익사항	지역사회 재취업 - 보육시설 - 특별활동 강사 - 아동보호 - 노인돌보미	마을 내 老 老 케 어 및 1·3 세 대 교 류 시 스 템 (사회 공헌, 재능 기부, 세대 통합)			
정보전달	- 지역정보전달 - 고령자인재은행등록 - 심리검사 - 직업, 적성검사	노인투어가 진행, 일일정보안내, 뉴스 및 이슈제공					
건강관리	- 건강교육 - 맞춤형운동 - 정신건강관리	노인강사가 진행, 전문강사 초빙병행					
주간보호 (소외예방)	- 식사제공 - 휴식	식사당번구성, 식사준비, 배식조 운영, 사랑방 휴식					
여가생활	- 기초교양, 정서함양 - 명사특강, 문화체험	노인강사가 진행, 전문강사 초빙병행					
일자리 교육	- 노인일자리교육 - 돌보미교육 - 시니어창업교육 - 전문자격 취득	노인강사가 진행, 전문강사 초빙병행, 1:1상담, 튜터제도 운영					
재무교육	- 기초노령 등 각종 소 득 창출방안 안내 - 절세, 채테크, 상속, 증여 등 재무관리교육	노인강사가 진행, 전문강사 초빙병행, 1:1상담					

- 운영프로그램을 문화/여가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 소통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 정보전달, 주간보호, 여가/문화, 일자리, 평생교육, 재무관리, 건강 관리, 1·3세대 교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
 -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모아서 연계하고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간접적 복지전달 비용 저감
 -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여, 관련 자원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기구로서 “프로그램 전달(Program Delivery)” 서비스 제공

- 실버 리스타트 스쿨의 분원형태로 운영하되, 지역특성에 맞추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복지 정책의 효율적 전달체계 역할 수행
 - 실버리스타트 스쿨(정책메모 233호, 고령사회 강원도 그리고 실버리스타트 스쿨 참조)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커리큘럼 분원 형태로 진행하고, 각 지역의 특성별로 ‘일자리 지원형’, ‘건강 지킴이형’, ‘세대 연결형’, ‘평생교육형’ 등으로 특성화 추진



point 3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협동조합으로 육성

-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 시니어들이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차원의 다양한 기능과 접목을 시도하고 필요한 교육훈련과 초기 자금 등 지원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생산적인 활동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고령자 협동조합화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
 -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보건복지행정서비스(건강지원, 상담, 방문간호, 주간보호, 의료용품 판매, 식사제공, 독거노인 말벗 지원, 물리치료 등)를 시범적으로 경로당에서 협동조합으로 운영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老-老 케어”의 실천적 모델로서, 노인이 공급자이면서 수요로서의 상호 케어 시스템 운영이 가능

일본의 ‘이리도리’	일본의 ‘시민서로돕기넷’	일본의 ‘장난감 닥터’
지역 고령자가 주변 산림에서 요리 장식으로 쓰이는 나뭇잎을 채취·가공하여 판매	설립자는 65세 나이에 지인들에게 출자금을 모금 설립 회원의 절반은 정년 퇴직 남성으로,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활동	장난감 수리를 취미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 전국적인 정보교환과 기술향상 평균연령 65세로, 강좌를 통해 장난감 닥터 양성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여, 지역의 고령자부터 어린이까지 여러 세대가 모여서 교류하고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일조

※ 이 정책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